

“기존 틀 깨자” 최고상품·채널에 디지털금융 입힌다

보험, 飛上 2020 전략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차남규 CEO 물러나며 ‘세대교체’ 라이프파크·와이어리스 등 구축 ‘디지털 금융’으로 수익 개선 전략 신뢰 통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 등 한화생명 화합적 노사관계 선언



한화생명은 2020년 새로운 슬로건으로 ‘메이크 뉴 프레임스, 고우 투 더 넘버원 (Make New Frames, Go to the No.1)’이라고 정했다.

지속되는 초저금리, 신제도 도입, 정부 규제 등의 어려운 보험환경 속에서 최고 수준의 상품과 판매채널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고객에게 믿음과 행복을 주는 1등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 위기를 기회로

한화생명은 지난해 초저금리와 저성장, 건전성 규제 강화, 새 국제보험회계 기준(IFRS17) 도입 등 제도 변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등 정부 규제로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이 모두 악화했다.

한화생명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543억원으로 직전년도(3854억원) 대비 60% 감소했다. 1990년대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비중이 높아 저금리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차역마진 상황이 발생한 탓이다.

LAT 강화에 대한 자본확충 우려도 있다. 한화생명의 2018년 말 LAT 잉여는 1조2000억원으로 2017년 말 7조1000억원에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은 차남규

부회장·여승주 사장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여승주 사장 대표이사 단독 체제로 변경했다. 지난해 11월 보험업계 대표 장수 CEO였던 차 부회장이 물러난 것이다. 세대교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단독 체제로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

여 사장은 2016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18년 10월 한화생명 사업총괄로 부임해 지난해 3월 한화생명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여 사장에게는 IFRS17, 신지급여력 제도(K-ICS)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해 자본을 확충하고 상품 포트폴리오와 판매 채널을 재편하는 한편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을 모두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 디지털 금융

한화생명은 수익성 개선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디지털 금융’이 있다.

여 사장은 지난해 초 위임 후 공식 일정으로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의 보험산업과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금융가치 창출, 금융산업 투자 전략에 대해 고민했다.

디지털 전문 금융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화생명은 ‘한화생명 라이프 파크(Life Park)’를 개원하고 디지털 전문 금융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스마트연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 교육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해 한화생명은 와이어리스(Wireless) 환경을 만들었다. 강의실뿐만 아니라 숙소동, 휴게실에서도 와이파이를 통한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다. 자산관리 플랫폼 벅크셀러드, 간편결제 플랫폼 페이코를 통한 모바일 상품 판매도 확대했다. 특히 비대면 채널을 선호하는 젊은 층을 위해 다이렉트 보험 채널인 ‘온슈어(Onsure)’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또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Record)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앱(애플리케이션) ‘헬로(HELLO)’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 앱은 사용자의 건강검진 정보,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정보(활동량, 영양, 수면 등)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여 사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신입사원 환영만찬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를 주도하는 새 시대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는 혁신적 사고를 갖춘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노사 협력 강화

한화생명 노사는 저금리, 제도변경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Make new Frames! Go to the No.1!’ 슬로건 아래 2020년 도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마음을 모았다.

여 사장과 김태갑 노동조합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노사화합

선포식을 갖고, 노사화합 공동선언을 통해 한화생명의 화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대내외에 선포하며 2020년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선언문에는 ▲신뢰를 통한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초일류 보험사를 향한 지속적 혁신 추진 ▲각자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의식 기반의 기업문화 정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 사장은 “조합의 회사에 대한 신뢰와 존중 덕분에 선포식이 이뤄졌다”며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는 경영으로 조합과 함께 회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한화생명 63빌딩 전경. /한화생명

주식결제대금 284.5조... 15.9% 감소

예탁원, 장외 주식결제대금 17% ↓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주식결제대금 총액은 28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9%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장내 주식시장결제대금은 119조4000억원으로 전년(138조8000억원) 대비 14.0% 감소했고, 장외 주식기관결제대금은 165조1000억원으로 전년(199조6000억원) 대비 17.3%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주식결제대금 추이를 보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2015년 287조7000억원보다 적고, 2016년 269조9000억원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결제대금 차감효과는 377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대

금차감이란 회원별로 총매도금액(수령포지션)에서 총매수금액(납부 포지션)을 차감해 계산된 포지션(수령 또는 납부)의 금액만 최종적인 결제대금으로 산정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 주식결제대금은 주식거래대금(4059조4000억원)의 7.0%에 해당, 차감률은 93.0%에 달했다.

시장별로 장내 주식시장결제의 차감효과는 2528조5000억원(차감률 95.5%), 장외 주식기관결제의 차감효과는 1246조4000억원(차감률 88.3%)으로 나타났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결제서비스를 통한 필요 결제자금의 최소화는 참가자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해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10.7조 잠자는 보험금 찾아가세요”

금융위, 작년 보험금 2.8조 주인 찾아 ‘숨은 보험금 찾아드립니다 캠페인’ 추진

지난해 보험 가입자들이 찾아가간 숨은 보험금이 2조82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10조원 가량의 보험금은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SMS, 알람톡, 전자등기 등을 이용해 숨은 보험금 정보를 안내하고, 폐업 도산이 신고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0년 숨은보험금 찾아드립니다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만기보험금·분할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에게 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말까지 숨은보험금 통합조

《2018년12월~2019년11월 말 중,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단위: 억원)

구분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합계
생명보험회사	20,083	5,597	1,018	26,698
손해보험회사	153	805	611	1,569
합계	20,236	6,402	1,629	28,267

/자료=금융위원회

회사서비스 ‘내보험 찾아줌’에서 보험소비자가 찾아가간 금액은 약 2조8267억원(126만7000건)이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약 2조6698억원, 손해보험사가 1569억원을 지급했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236억원, 만기보험금 6402억원, 휴면보험금 1629억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현재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7조8600억원, 만기보험금 1조7800억원,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으로 총 10조734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우선보험사가 지난해 보험계약자의 최신연락처를 파악한 경우 오는 14일부터 SMS, 알람톡, 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한다.

최신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음에도 보험금이 미정구된 계약은 오는 2월부터 우편을 통해 최신주소로 숨은 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다만, 지난해 11월부 올해 1월 중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숨은 보험금을 안내했다면, 중복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우편을 재발송하지 않는다. 안내우편 수령을 희망않을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1월 중 안내우편 수령 거부 신청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 yu115@

금감원, 2020 외부감사제도 순회설명회

제도관련 현상상담 등 병행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는 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두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과 감사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현상상담을 병행하는 등 원활한 감사인 선임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한다.

30일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1월31일) ▲대구(2월4일) ▲울산(2월5일) 등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설명자료는 금감원 회계포탈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

금리인하 영향... 채권발행 9.1% 증가

지난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국채와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협회가 13일 발표한 ‘2019년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발행 규모는 686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1%(57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채는 전년보다 45%(51조6000억원) 증가한 166조1000억원, 통안

채는 11.1%(17조8000억원) 감소한 142조1000억원이 발행됐다.

금융채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안심전환대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이 은행채 발행 제한 요인으로 작용해 전년보다 0.7%(1조3000억원) 소폭 증가한 192조4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손영지 기자